

사회

노총각 울리는 국제 사기결혼

결혼식 올린 신부 입국 않고 중개업소에 돈 떼이기 일쑤

광주지법 혼인무효소송 매달 30건이나

지난 21일 강모(53)씨는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해 웃으며 법정을 나왔다. 강씨는 1500만원을 주고 올 초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32살의 필리핀 여성을 만나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먼저 귀국한 강씨는 광주시 남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뒤 비자 문제로 한 달 뒤 입국하는 신부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5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강씨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최모(58)씨는 지난해 8월 국제결혼업체의 소개로 한국에서 서류상으로만 베트남 여성(41)과 혼인신고를 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했

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베트남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업체에서는 계약 당시 결혼 성사가 안 되면 50%를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은 몇 달이 지나도 입국하지 않았고, 최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농촌 총각이나 대도시의 노총각들이 이주여성에게 위장결혼 등 국제결혼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국제결혼 피해 남성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국제결혼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2011년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사 관련 민원은 모두 991건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25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아예 입국을 하지 않거나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도 152건에 달하는 등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해보지도 못한 채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광주지부에도 지난해 70여 건의 국제결혼 상담이 접수됐다.

하지만 국제결혼 피해 남성들에 대한 보호책은 미흡하다. 지난 2010년 제정된 '국제결혼중개업자 관리법'에 관한 법률은 국제결혼에 대한 피해 책임을 국제결혼중개업자와 의뢰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남성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혼이나 혼인무효소송을 택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실제 광주지법에 서민 매달 30여 건의 혼인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혼인은 쌍방의 동의에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 및 혼인사실이 없었다는 사실, 즉 '사기'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영광원전 위조부품 5595개 사용

원자력안전위, 미검증 부품 추가 확인

주민 '국정조사 촉구' 시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부품 민간합동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계전기, 퓨즈, 스위치 등 53개 품목 919개 부품이 위조된 품질검증서로 납품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미검증 부품 중 원전에 사용된 부품은 34개 품목 587개로 영광 3·4·5·6호기와 울진 3·4호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은 모두 290개 품목에 8601개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170개 품목 5820개가 원전에 사용됐다. 영광원전에는 모두 5595개의 위조 부품이 설치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등 록돼 있는 12개 해외 품질인증기관에서 받은 결과로 품질검증서 위조와 관련된 국내 업체는 모두 10곳으로

파악됐다.

안전위는 추가 확인된 부품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검증품을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민간합동조사단과 안전기술원이 교체와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영광군과 고창군 주민 400여명은 2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지난 10년 간의 '위조 보충서 부품 납품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정부는 연말까지 재가동 시한을 정해놓은 채 사건 은폐와 납품업자 처벌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보충서 위조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성추문 검사' 영장 재청구

대검찰청 검찰분부는 여성 피의자 B씨(43)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전모(30) 검사에 대해 같은 뇌물수수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1차 영장청구에 대해 "뇌물죄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도가니 피해자 법정 증인 출석 반발

인화학교 대책위, 고법 결정에 재판부 기피신청 추진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을 결정해 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7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강모(63)씨 관련 항소심을 맡고 있는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환)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공판에서 다음달 6일로 속행 공판에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이 사건 목격자, 당시 주치의

였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대책위 측은 "성폭행 피해자는 결혼한 뒤 현재 임신중이어서 증인 출석은 불가하고,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불만이 커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심신을 감안해 최대한 배려하겠다

고 재판부가 밝혔으나 대책위에서 이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8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단 삭발, 무기한 농성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2005년 4월경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여·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성폭력 없는 사회"

성폭력 추방 주건을 맞아 27일 오후 광주시 북구와 여성민우회원들이 전남대 후문에서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열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성폭력 근절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차량용 블랙박스 KS규격 모두 미달

블랙박스 11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KS규격 16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소시모는 KS규격 항목 총 26개 가운데 소비자 불만 사례를 참고해 카메라 화소수, 영상 데이터 저장 주기, 번호판 인식 성능, 정전기 보호 등 16개 항목을 추려 점검했다.

/연합뉴스

겨울 땀감 구하러 나섰다...

보성서 70대 노인 나무에 깔려 숨져

가족의 겨울 땀감을 구하러 나선던 노인이 나무에 깔려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7일 오전 7시40분경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한 야산에서 인근 마을 주민 백모(73)씨가 나무에 깔

려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백씨는 자신의 집 나무보일러 땀감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인근 야산으로 경운기를 몰고 나무를 하러 다녔다. 지난 26일에도 평소

와 같이 경운기를 몰고 나간 뒤 늦도록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119대원들은 늦은 밤까지 수색을 펼쳤지만 찾지 못하고 27일 함께 아버지를 찾으러 나선 아들이 산비탈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비탈진 야산에서 나무를 자르던 백씨가 쓰러지는 나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인간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펼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심장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도 느끼며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의원회 의료원고성빌딩 제120917-중-11712호 (광교)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짝하고 눈물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윗구멍이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펠릿 불꽃난로 온풍기

기존 난방비용대비 70%절감효율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는 펠릿불꽃난로 온풍기!!

A형	불꽃난로 제품규격	B형
단독형(스토브식)난로	명칭: 220V, 60Hz	단독형(스토브식)난로
	전 치 수: 500 x 530 x 870	전 치 수: 550 x 750 x 1050
	약 65kg	약 80kg
	일 8시간 기준 약 10kg	일 8시간 기준 약 12kg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8kg	최대 20kg	최대 30kg
최대 20kg	60W	70W
983m³(구 직경 20~30명형)	사 용 면 적	9149m³(구 직경 40~50명형)

연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주택/사무실/영업장/공장 등 실내 어느 곳이나 설치 가능하며 뛰어난 난방효과와 함께 고상하고 우아한 실내분위기 연출효과!!

제품명	연료	일 8시간 기준 사용량	금액(환산)
펠릿난로	우드펠릿	약 10kg	3,500원
석유온풍기	석유	약 16L	22,400원
전기온풍기	전기	약 32kw	10,163원
석유난로	석유	약 10.4L	14,560원

문의 전화: 070-4111-7823 / 010-9468-3282

대리점 · 취급점 · 딜러 영업사원모집 (유사업종 우대)